

# 李·트럼프 ‘관세협상 막판 타결’ 결단하나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미 투자패키지

직접투자 규모·방식 등 쟁점 이견 여전

트럼프 스타일 고려 ‘극적 타결’ 전망도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담판 등을 통해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협상장 밖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약 3개월간 진행한 후속 협의에도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단사를 만에 이룬 간극을 메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이 이미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한 상태이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로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250억달러씩 8년 분할투자’ 의견접근 시도

26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3천500억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 기간, 투자 이익 배분 구조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30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는데, ‘디테일’(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애초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미는 최근 잇단 각료급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면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장기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불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최근 나왔다.

투자 이익 배분 구조를 놓고도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한미가 5대 5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는 한미가 1대 9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미국이 이 비율을 각각 9대 1, 9대 1로 한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꿨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 등 고려 ‘결단’ 가능성도

일본이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문서화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간 양국 정상에 대미 투자 MOU에 서명하는 그림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핵심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냐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동맹국인 한국과 관세 문제로 빠진다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짓는 모습을 보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협상하고 시간에 쫓겨 결과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이 결렬되며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맞는 것 역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이 어느 수준에서 양보한다면 우리도 이를 받아 최종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휘발유 가격 내림세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 26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8당 1.6원 내린 1천661.1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1천534.8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바이 코리아’...코스피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1천조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불장’ 속 ‘바이 코리아’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코스피에서 보유한 시가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했다.

26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3천243조원으로 집계됐다.

### 로또복권

〈제1195회〉

| 등위                            | 당첨금           | 당첨번호            |
|-------------------------------|---------------|-----------------|
| 당첨번호 3 15 27 33 34 36 /보너스 37 |               |                 |
| 1등                            | 2,939,186,738 | 6개 숫자 일치        |
| 2등                            | 56,960,984    |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
| 3등                            | 1,467,979     | 5개 숫자 일치        |
| 4등                            | 50,000        | 4개 숫자 일치        |
| 5등                            | 5,000         | 3개 숫자 일치        |

보유 비중 34.71%로 늘어

이달 들어서만 425조 증가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액은 1천125조원이다. 보유 비중이 34.71%에 달한다.

지난해 연말 632조원에서 약 10개월 사이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은 1천963조원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은 32.21%였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시가총액은 425조원 늘어났다.

이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오른 데다 이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세를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반도체 대형

주에 집중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보유액은 각각 305조원, 204조원으로 나타났다.

보유 비중은 삼성전자가 52.22%, SK하이닉스는 54.99%다.

증권가는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사자’가 글로벌 유동성에 반도체 업황 개선 및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법 전진 및 시행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재평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성 확대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 기대, 정부 차원의 산업 및 투자 정책 강화로 매력력이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 및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 일어나는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 달러 약세 속 신흥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3저 현황’이라는 조합이 재현되고 있는데, 특히 ‘저달러+저유가’라는 매우 어려운 조합이 40년 만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의 달러 강세는 아직까진 중단기적이라 보며, 미국의 ‘금융 억압’(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거나 다른 정책을 통해 민간의 자금을 정부 부문으로 유도하는 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저달러+저금리’ 구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투데이경제



### 농협광주본부·서광주농협 ‘애플데이’ 행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26일 “지난 24일 농협광주본부 주차장에서 서광주농협과 함께 ‘애플데이(Apple Day)’ 행사를 열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애플데이’는 사과가 제철인 10월을 맞아 ‘둘(2)이 서로 사(4)과하고 화해하는 날’이라는 뜻을 담아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농협광주본부가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금요장터’와 연계해 열렸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이 장터는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봉지 사과를 현장 한정가로 할인 판매하고 고객 사은품 증정과 사과 시식 코너도 함께 운영해 분위기가 한층 더 활기찼다.

이현호 광주지역본부장은 “추석 명절 이후 소비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 NH농협은행 전남본부 ‘E8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6일 “최근 외국인 고객 전용 브랜드 ‘NH글로벌위드(NH Global WITH)’의 첫 서비스로 우리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를 위한 ‘E8패키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패키지인 ‘E8패키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급여 해외송금, 체류 중 보험 보장, 귀국 비용 환전까지 체류과정의 전 금융서비스를 통합해 혜택을 제공한다.

영업점에서 현찰환전 시 최대 50% 환율우대를 제공하고 ‘NH-ONE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면제(5천 달러 이하) ▲전신료 5천원 적용 ▲NH농협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매월 무료가입(전월실적 800달러 이상) ▲모든 통화 50% 환율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고객의 혜택을 강화하고자 글로벌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E-8 비자발급 주요국가에 대한 중계은행수수료를 인하했다. /안태호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     |                         |
|-----|-------------------------|
| 헤드  | 단형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     |                      |
|-----|----------------------|
| 헤드  | 단형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2g (±10g), 샤프트 50g |

####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     |                         |
|-----|-------------------------|
| 헤드  | 단형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